

투데이 칼럼

한중 외교회담의 전망

북한의 올 전체 식량은 지난 해보다 18만t, 쌀만 해도 9만t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을 식량 위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핵개발 대신 빗장을 풀고 우리와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배고픔부터 해결하는 게 순리다.

북한은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또 다른 신형 전락무기 개발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미일, 한중간에는 외교적 움직임도 분주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4개월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수석대표들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어렵게 보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토폴로스) 추진력을 가진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첫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은밀성과 기동력을 갖춘 고체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른 신형 전락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한미일과 한중의 고위



정복규
논설위원

급 접촉이 동시적으로 열렸다. 8월 대면회담 이후로 4개월 만에 이번엔 화상으로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다. 박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며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고, 왕이 외교부장도 건설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 나아가 중국 외교부 발표엔 "미국은 국제 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다. 우리와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 나라가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안

보리가 공개 논의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유엔 총회에선 북한 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18년 연속 통과시켰고,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 등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북한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0일에 공개한 국가방위전략, NDS 보고서에서 한·미·일·호주 간 4각 협력 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 역제를 강조했다.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최근엔 호주와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목된다. 한편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보다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

도 나온다.

외교와 국방장관들이 같이 한 2+2 회담에서 일본과 호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와 호주군의 연합훈련을 확대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F-36를 포함한 항공기위대 전투기를 호주로 전개하는 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기사나 일본 총리는 호주 총리와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공동 대응하는 신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은 6월 이후 세 차례나 호주와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연합훈련과 방산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10월 말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 공중훈련엔 호주 공군기가 참여하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한국, 일본, 호주의 밀착은 미국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핵심 이익인 북한 비핵화보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단번치 않았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편 가르기는 심화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놓고는 미중 모두 소극적이다. 북한은 국제 정치의 이런 틈을 교묘히 파고들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사설

대한방직 터 개발 문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인 자광이 최근 공장 철거 기념식을 대규모로 열었다. 옛 공장을 철거하는데 불과한 일을 대형 이벤트로 개최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자광은 2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53층 높이의 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2조 원 규모의 계획을 밝혔다.

행사장에는 도시개발 인허가권자인 전주시장과 도시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민간 투자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전주 시장이 참석하면서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공장 철거에 불과한 일을 대규모 행사로 기획하고 유력 인사들의 참석을 내세워 개발의 동력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토지의

40%를 계획 이득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그 뒤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자광은 이렇다 할 반응이 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시장과 도시사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자, 자광은 개발이득 반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수 싸움에 들어간 모습이다.

권고안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광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정할 전주시의 사전 협상 지점이 중요하다. 부지용도 변경과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등의 세부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업체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 환수 등 심각한 우려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특정 개발업체 편들기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 사전협상 지점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광의 재무 상태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개발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인 전망도 여전하다.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기업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한 것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가 21일 저녁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소환 통보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권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제3차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민심 행보에 나선 이 대표는 22일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21일 갑자기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며,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을 때내고 반발했다.

이어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무혐의로 결정 났던 성남 FC 광고 한 것 가지고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없는 면지 만들어 내려고 십 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또 다시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성별 자유 변경법 발표에 환호하는 스페인 사람들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계단에 모인 사람들이 성별을 자유롭게 바꾸게 해주는 트랜스젠더 법 발표에 기뻐하고 있다. 스페인 하원은 18세 이상의 시민이 의료 감독 없이 등록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전환 법을 통과시켰다.

어린이들 맞이하는 스타워즈 캐릭터들



영화 '스타워즈' 등장인물로 분장한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행사 중 선물을 나눠주기 전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행사는 전직 성 노동자들과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비다 누에바' 재단이 주관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